제지업계, 바닥 경기 탈피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지경기의 관련지표가 바닥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내 총지류의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 재고지수는 2.5% 감소했다. 출하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이전(1년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재고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2개월(7 · 8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총지류의 재고조정이 일단락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반기 이후 2006년 국내경기가 지난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지수요의 점증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8월 이후 백판지는 평균 3% 수준의 내수가격 인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쇄용지는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비수기에 확보한 재고소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하반기 이후 제지경기 회복가능성에 대한 판단 근거는 우선 지난 약 1년간에 지속되어 오던 총지류의 출하감소와 재고증가라는 지표가 바닥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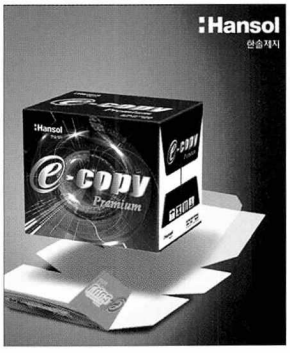
대신증권은 "두 지표들이 최근 5개월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제지경기가 바닥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지수요의 전방산업은 특성산업에 치우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내 경기(GDP), 특히 내수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창업 40주년 행사 개최

한솔제지가 창업 40주년을 맞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선우영석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의 기간이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던 한솔을 제2창업의 각오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도약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다진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 기틀 위해 새로운 비전과 가치창출을 위한 골격을 만드는 해가 되길 희망한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하는 한솔제지로 다시 태어나자"고 밝혔다.

한편, 한솔그룹은 창업 40주년에 맞춰 한솔그룹 40년사를 발간, 관련 업계 및 단체에 배포했다.

한솔제지, 국내 최초 81g 복사용지 출시



한솔제지는 최근 국내 최초로 81g 복사용지인 'e-copy premium'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copy premium은 기존 75g 복사용지인 e-copy gold의 후속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e-copy premium 81g은 용지의 강도와 평활성을 최대한 높여 단순 복사로부터 고속복사 적성 및 잉크젯, 레이저 프린팅에서도 높은 인쇄 선명도를 보여준다. 수입지와 차별화하여 회분(돌가루)을 10% 이내 사용하여 복사기 드럼의 마모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중성지(ph 7.0이상)로 생산 햇빛에 잘 변색되지 않는 등 보존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한솔제지는 e-copy premium81의 출시와 함께 기존 e-copy gold를 사용해 온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로 e-copy premium 81g을 구매할 경우 1권(250sheet)을 더 증정하는 '10+1' 행사를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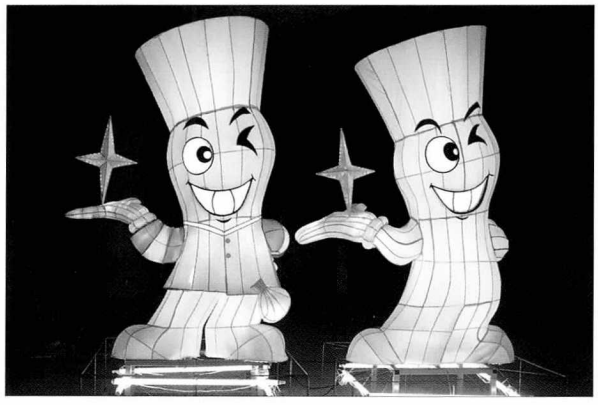
무림 · 신무림제지, 공모전 결과 발표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지난 9월21일 대학생 대상으로 개최된 '제2회 달력 디자인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은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 김지희 학생과 최정훈 학생의 공동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생다운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35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가 어려워 최종 선정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을 수상한 김지희 · 최정훈 학생은 제출한 작품설명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와 클레이(점토)에 감성을 불어넣는 의인화 작업을 통해 달력 이미지를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대학생 달력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8월22일부터 약 열흘간 접수된 서른 다섯개 작품에 대해 3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으며, 당선작은 2006년 탁상용과 벽걸이용 달력으로 제작돼 사내는 물론 외부 고객들에게도 배포될 예정이다.

신무림제지,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후원



신무림제지는 지난 10월 중 진주 일원에서 개최된 2005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제 55회 개천예술제를 후원하고 행사홍보를 도왔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우수축제로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이 3800여명의 병력으로 2만 왜군을 무찌른 진주대첩을 기념한 축제이다. 당시 성 밖에 있던 의병과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풍등을 하늘에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운데서 비롯됐다. 개천예술제는 전국 문화예술축제의 효시로 지난 194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남강유등축제는 개천예술제에서 지난 2000년 분리됐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10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12일간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개천예술제는 10월3일부터 10월10일까지 8일간 진주시 전역에서 개최됐다.

신무림제지는 신제품 네오아트 SE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의 팜플렛과 포스터 등 인쇄물에 사용된 종이 일체를 후원해 행사홍보에 이바지했다.

한국제지, 도메인 www.hiper.com으로 변경

한국제지(주)의 공식도메인이 9월부터 www.hiper.com으로 변경됐다. 2006년 8월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도메인도 겸용 사용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사용이 중지된다. 고품질 종이(high quality paper)를 의미하는 hiper(하이퍼)는 한국제지 생산제품인 복사용지, 프리미엄 아트지, 백상지, 벽지, 중질지 등 한국제지 전 제품의 대표 브랜드다. 한국제지는 기업 및 대표 브랜드의 체계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대표 도메인과 이메일 주소를 www.hiper.com과 ID@hiper.com으로 각각 변경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팝업창을 통해 알렸다.

한국제지, 10월4일 임원 이 · 취임식 가져

한국제지(주)는 지난 10월4일 단두현 전 전무이사와 이덕희 영업이사의 이 ·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단두현 전 전무이사는 "여러분 덕택으로 27년간의 한국제지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며 27년 정든 한국제지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말했다. 이어 신임 영업이사로 부임한 이덕희 이사는 "일과 동료 그리고 회사의 대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바탕이 될 때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취임사를 밝혔다. 이날 전원중 한국제지(주) 대표이사 사장은 "현재 우리의 당면과제인 A-project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모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1년이 지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신호제지, 952만주 유상 증자통한 시설투자

신호제지는 지난 9월22일 이사회를 개최, 952만주를 추가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시설투자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로 인해 확보되는 자금은 모두 530억원 규모로, 전액 시설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호제지의 측은 "지난 1997년 신탄진 공장 증설 이후 워크아웃 등을 거치면서 시설 투자의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지난해 말 워크아웃 종결과 함께 급변하는 제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설투자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설 투자는 양면의 종이에 두번 코팅해 고품질의 아트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초지설비를 추가적인 확충에 집중된다. 초지설비인 슈프레스의 경우 작업 효율성 제고와 생산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블 쿼터 라인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시장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신호제지는 또 기존 설비 중 노화된 생산라인의 경우 교체, 높은 품질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추가해 품질향상과 수익성 극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신호제지, 그랑프리 아트지 출시

신호제지는 지난 10월21일 타워호텔 신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제품 그랑프리 아트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보 영상물 상영, 그랑프리 아트지 제품 설명회, 그랑프리 아트지에 대한 Q&A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미디언 김형곤 초청 "〈엔돌핀 코드〉 웃음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강좌도 마련됐다.

국일제지, 다중 화상 회의 실시

국일제지가 국내 제지업계 가운데 최초로 다중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일제지는 매주 월요일 오전 서울 본사와 경기 용인공장 및 중국 공장을 연결한 3자간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일제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지난해 중국 공장 착공식을 하면서 공장 준공 상황과 판매망 확인을 위해 매일 실시간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회상회의 시스템 덕분에 국일제지 중국 공장은 지난 8월 완공을 하고 지난달부터 제품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일제지는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본사 상황실에서 중국 공장 정문과 외곽에 오가는 인부들의 모습 및 공장 생산라인 가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3개월간 내용을 녹화할 수 있어 과거 사고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다. 중국 공장의 경우 케이블을 10㎞ 주변에 깔아놔 향후 추가 증설시 필요한 인프라까지 갖췄다.